

##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

2019. 9. 11.

관계부처 합동

### 목 차

I. 최근 수출동향 및 글로벌 수출환경 변화	1
II. 우리나라 수출시장구조 분석	5
III. 수출시장구조 혁신 기본방향	9
IV.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[3대 시장]	10
1. 전략시장	11
2. 신흥시장	15
3. 주력시장	18
V.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 [3대 전략]	21
1. 글로벌 R&D와 해외 M&A를 통한 기술력 확보	21
2.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	23
3.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·투자전략 추진	25

# I. 최근 수출동향 및 글로벌 수출환경 변화

## ◇ 최근 세계무역은 수요 위축으로 증가세 둔화

□ '19.3분기 상품무역지수\*는 95.7로 세계무역은 감소 추세 (WTO, '19.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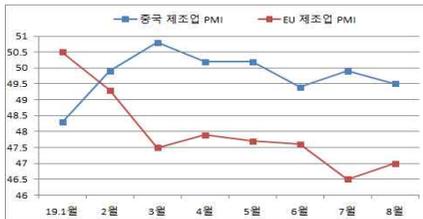
\* WTO에서 분기별로 발표, 100보다 작으면 상품무역량의 감소 추세를 의미

○ 중국·EU 제조업 경기둔화에 따른 세계 수입수요 위축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무역증가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

\* 中 제조업 PMI : <sup>(19.1)</sup>48.3 → <sup>(2)</sup>49.9 → <sup>(3)</sup>50.8 → <sup>(4)</sup>50.2 → <sup>(5)</sup>50.2 → <sup>(6)</sup>49.4 → <sup>(7)</sup>49.9 → <sup>(8)</sup>49.5

\* EU 제조업 PMI : <sup>(19.1)</sup>50.5 → <sup>(2)</sup>49.3 → <sup>(3)</sup>47.5 → <sup>(4)</sup>47.9 → <sup>(5)</sup>47.7 → <sup>(6)</sup>47.6 → <sup>(7)</sup>46.5 → <sup>(8)</sup>47.0

中·EU 제조업 PMI 지수



세계 수입수요 증감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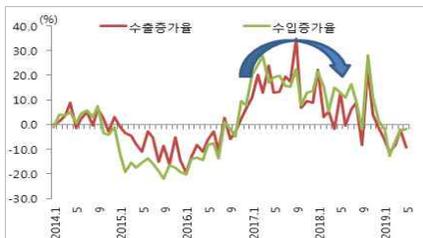
\* PMI 지수 : 50 이상이면 확장,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

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및 무역증가율 전망치 조정

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	OECD			IMF		
	'19.3월	'19.5월	조정폭	'19.5월	'19.7월	조정폭
	3.3%	3.2%	-0.1%p	3.3%	3.2%	-0.1%p
2019년 세계 무역증가율	OECD			WTO		
	'19.1월	'19.4월	조정폭	'18.9월	'19.4월	조정폭
	3.7%	2.1%	-1.6%p	3.7%	2.6%	-1.1%p

□ '19.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2,713억불로 전년대비 8.6% 감소하였으며, 전세계 주요국의 수출도 동반 부진

우리나라 수출입 증감률



수출 상위 6개국 수출 증감률

	中	美	獨	日	和蘭	韓
'18.10월	15.6	7.9	6.0	8.4	11.3	22.5
11월	5.4	3.7	△3.3	△0.2	1.4	3.8
12월	△4.5	△0.3	△8.2	△3.2	△3.9	△1.3
'19.1월	9.1	3.5	△5.0	△6.8	△4.5	△5.8
2월	△20.7	2.6	△4.5	△3.5	△1.6	△11.1
3월	14.2	△0.7	△6.8	△7.0	△2.2	△8.3
4월	△2.7	△2.1	△9.1	△5.9	△0.2	△2.1
5월	1.1	△2.1	△1.0	△9.4	△1.2	△9.8
6월	△1.3	△5.0	△11.2	△4.9	△4.5	△1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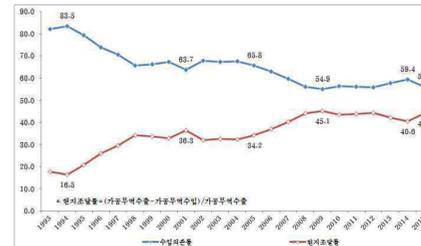
## ◇ 글로벌 공급망은 약화되고 재편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

□ 중국의 내수부양(Inside China), 주요국의 리쇼어링(Reshoring)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(GVC; Global Value Chain)이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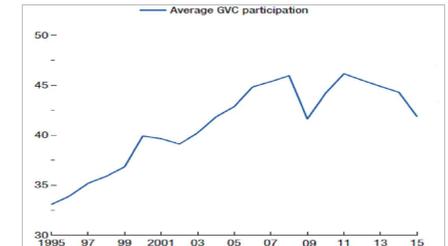
○ 중국은 '15년 이후 조립·가공 중심에서 기술고도화를 통한 중간재 국내생산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

○ 독일 제조기업 해외생산 비중은 '06년 15%에서 '09년 9%, '12년 8%로 하락하였고 '06년 이후 매년 조사기업의 2~3%는 본국으로 회귀

中 가공무역 수입의존율·현지조달률



세계 GVC 참여율



\* 자료 : UNCTAD

□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은 GVC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새로운 소재와 부품의 공급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존 GVC도 재편

○ 스마트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선진국도 제조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

- 스마트 공장은 생산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대량 맞춤형 생산으로 모든 가치사슬 활동의 부가가치를 제고

\* 스마트공장에서 로봇, 3D프린팅으로 신발 생산시 제작에서 배송까지 기간이 6주에서 5일로 단축되고, 50만 켤레 생산에 기존 600명 투입에서 10명으로 가능

○ 전기차·수소차 확산으로 자동차 원자재나 부품조달 구조가 변화\*하고, 수소사회는 에너지, 항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조달구조 형성

\* 자동차 소재 비중 : (철강) '10년 77% → '35년 40% / (전자부품) '20년 35% → '30년 50%

□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중국 위상이 약화되고 아세안 등이 부상

- 최근 EU, 아세안 등으로의 그린필드\* 외국인투자(FDI)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의 FDI 투자액\*\*은 전반적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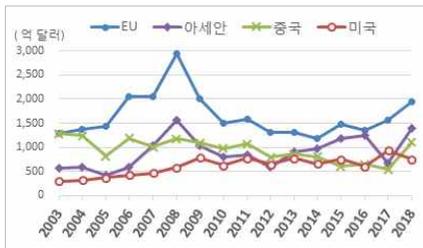
\* 그린필드 투자 : 생산거점(공장, 사업장 등) 설립을 위한 신규 직접투자

\*\* 글로벌 對중국 그린필드형 FDI : ('03년) 1,287억 달러 → ('18년) 1,106억 달러

- 세계 무역에서 동남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, 특히 베트남, 말련 등 아세안6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 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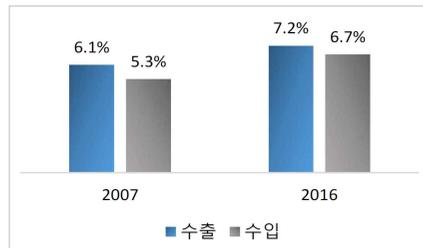
\* 아세안6 :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

그린필드형 FDI 유입액



\* 자료 : UNCTAD

세계 수출입 중 아세안6 비중



\* 자료 : KOTRA

□ 세계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노력중

- (미국)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미지역 제조기지, 미국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

- 미국내 철강공장 가동률(73% → 80%), NAFTA 자동차 부품 사용 비율(62.5% → 75%) 등을 높이고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

- (중국)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(Red Supply Chain)을 구축하여 핵심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'25년까지 70%로 제고할 계획

- (일본) 아세안 지역에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고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을 통해 아세안 지역 입지를 더욱 공고화

- '60년대 이후 태국 등을 자동차 생산기지 거점으로 설정하고 부품 기업과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아세안 자동차 시장 독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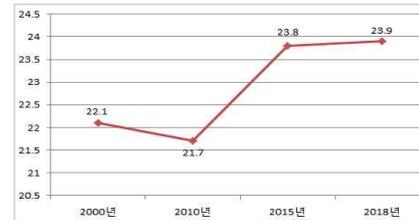
- (독일) 제조업 전반을 스마트化하여 저임금에 강점을 지닌 개도국과 생산비용 격차 해소 → EU 지역내에 GVC 허브로서 위상 강화

◇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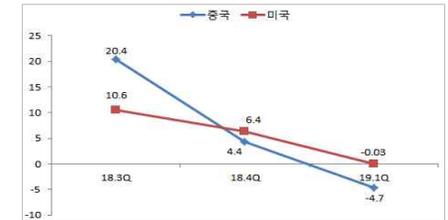
- (미·중 무역분쟁 장기화) 미·중간 기술패권,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산되면서 G2의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은 정체

- 미·중간 상호관세 부과('18.7월) 이후 G2의 세계 수입시장 비중은 '19.3월까지 하락,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하락세 지속 예상

G2의 세계수입시장 내 비중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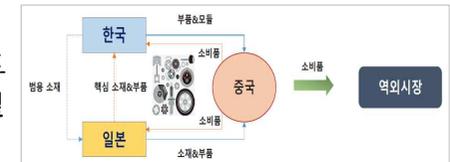
'18.7월 이후 G2 수입증가율(%)



- (일본 수출제한) 일본은 對韓 수출 3개 품목\*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 제외('19.8.28)

\* 불화수소, 포토레지스트, 불화 폴리이미드(7.4 시행)

- 3개 품목은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효과



\* 한국의 對日 의존도 : 불화수소(약 80%), 레지스트(약 90%), 폴리이미드(100%)

-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 시 그간 일반포괄허가를 받거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건별로 개별수출허가 획득 필요

\* 소재·부품 수출허가 심사절차가 강화되어 소재·부품 수급에 부정적 영향 발생

- (브렉시트) 브렉시트는 영국 및 EU회원국 간의 국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주변국에 부정적 영향

- 특히,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상위 수입국 중 노르웨이, 스위스, 터키, 러시아, 대만 등의 順으로 GDP 감소 전망

## II. 우리나라 수출시장구조 분석

### ◇ 우리나라 수출은 G2(미·중)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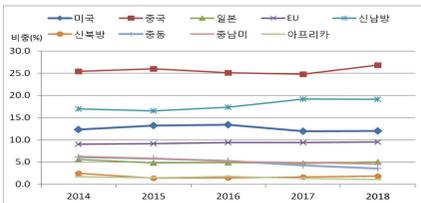
□ (수출비중) 최근 5년간 미·중에 대한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35% 이상 유지, 특히 총 수출의 1/4 이상을 중국에 수출

○ '18년 G2에 대한 수출비중은 38.9%로 주요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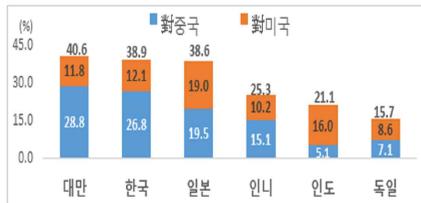
○ 5대 수출국의 비중과 10대 수출국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

\* 2대 수출국 비중(%) : ('71) 75.5 → ('85) 50.5 → ('98) 26.5 → ('08) 32.6 → ('17) 36.7  
 5대 수출국 비중(%) : ('71) 85.1 → ('85) 63.0 → ('98) 46.4 → ('08) 47.9 → ('17) 56.5  
 10대 수출국 비중(%) : ('71) 91.8 → ('85) 75.1 → ('98) 62.0 → ('08) 59.7 → ('17) 69.2

한국의 對세계 수출비중



주요국 對G2 수출 비중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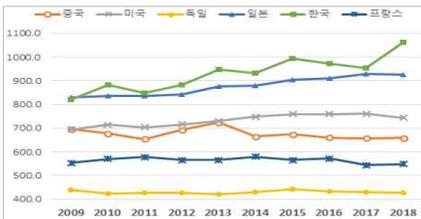


□ (수출집중도) 우리나라의 수출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지속 상승

○ '09년 이후 우리나라의 허핀달-허쉬만 집중도 지수(HHI)\*도 가장 높으며 2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

\* 한국(1,063), 일본(925), 미국(745), 중국(659), 프랑스(548), 독일(426)

주요국 HHI 추이



◆ 허핀달-허쉬만 집중도 지수(HHI)  
 : 수출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각 시장 별로 점유율을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하여 구함

◆ 독일의 집중도가 가장 낮고, 다음으로 프랑스, 중국, 미국 순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➔ 수출시장 다변화로 중국, 미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수입증가를 둔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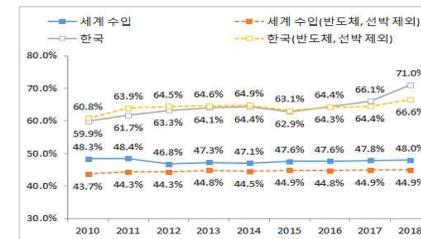
### ◇ 우리나라 수출은 주요국의 수입과 정합성이 낮은 구조

□ (중간재) 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은 48%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'10년 대비 '18년 10%p 상승하여 71% 수준

\*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와 선박 제외시 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은 45%를 유지하고 있으나, 중간재 수출 비중은 '10년 대비 '18년 7%p 상승 (60% → 6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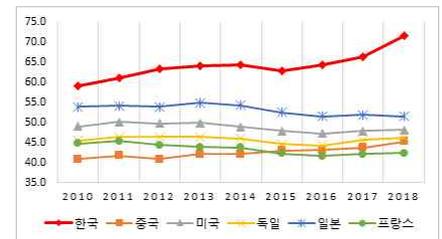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, 독일, 일본 등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50% 내외로 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(48%)에 수렴

세계 수입과 한국 수출의 중간재 비중

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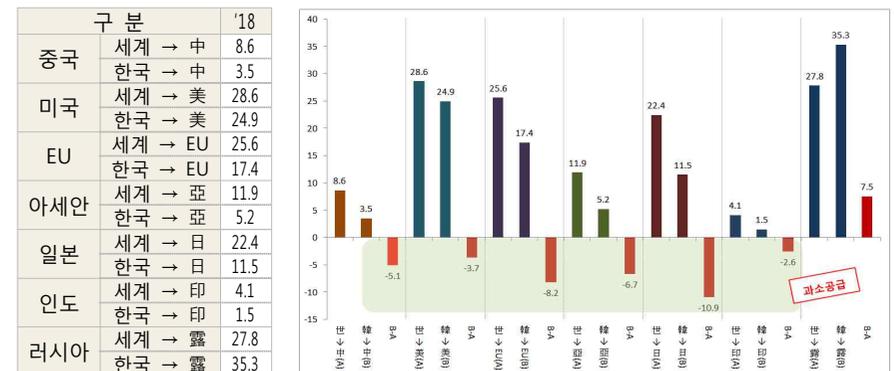
주요국 및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

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(소비재)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비중은 수출상대국의 對세계 소비재 수입 비중보다 낮음 ➔ 소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취약

주요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과 한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 비교(%, %p)



\* 자료 : 무역협회

➔ 글로벌 공급망(GVC)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품목다변화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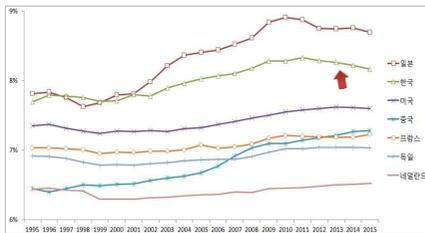
◇ 우리나라 수출은 변동 리스크가 높은 구조

□ 우리나라 수출의 기대 수익률과 변동 리스크는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, 수출 7강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(고성장·고위험)

\* 마르코비츠(Markowitz, '52)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(Modern Portfolio)을 수출시장에 적용(기대 수익률과 변동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자산의 조합 선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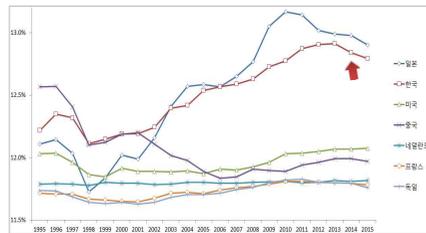
- ◇ 수출의 기대 수익률(Expected Return) : 수출시장구조에서 수입수요 증가율이 높은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남
- ◇ 수출의 변동 리스크(Return Volatility) : 수출시장구조에서 수입수요 증가율의 변화폭이 큰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남

수출 7강의 수출 기대 수익률

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수출 7강의 수출 변동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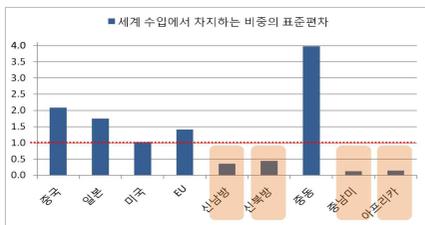
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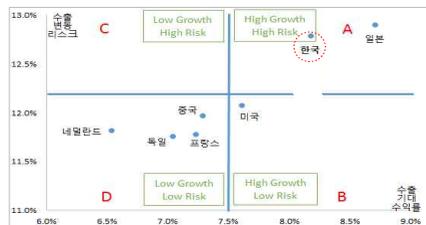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 수출의 변동 리스크가 높은 것은 세계수입시장에서의 비중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

○ 최근 10년간 세계수입시장에서 비중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신남방, 신북방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분석

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표준편차



주요국의 기대수익률과 변동 리스크



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'19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수출은  $\Delta 2.8\%$  감소 (WTO, '19.8월)

○ 일본·한국·홍콩 등 아시아 국가 수출 순위는 일제히 하락한 반면, 네덜란드·프랑스·이탈리아 등의 수출 순위는 상승

\* 수출순위 변동 : 일본(4→5위) vs 네덜란드(5→4위), 한국(6→7위) vs 프랑스(7→6위), 홍콩(8→9위) vs 이탈리아(9→8위) 간 순위 역전

-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한 우리수출은 최근 9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면서 '19년 상반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수준( $\Delta 8.6\%$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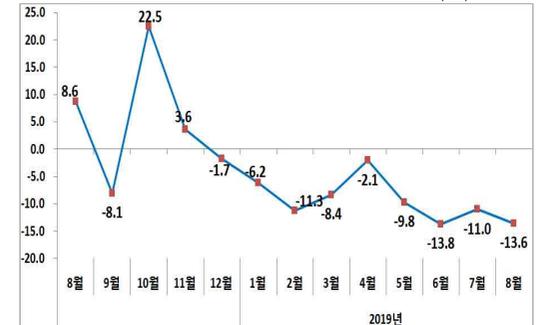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EU 국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음

상위 10대국가 실적('19.8)

순위	국가명	수출		
		금액	증감률	비중
1	중국	11,711	0.1	13.6
2	미국	8,241	$\Delta 0.9$	9.6
3	독일	7,536	$\Delta 6.3$	8.8
4	네덜란드	3,543	$\Delta 2.2$	4.1
5	일본	3,470	$\Delta 6.1$	4.0
6	프랑스	2,916	$\Delta 1.5$	3.4
7	한국	2,713	$\Delta 8.6$	3.2
8	이탈리아	2,685	$\Delta 4.2$	3.1
9	홍콩	2,561	$\Delta 6.3$	3.0
10	영국	2,373	$\Delta 3.5$	2.8
-	총계	85,795	$\Delta 2.8$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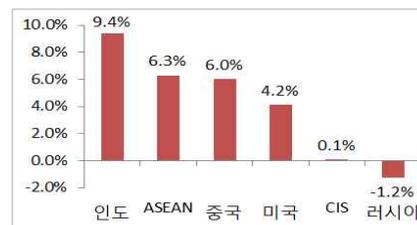
\* 자료 : WTO

최근 우리나라 수출증감률 추이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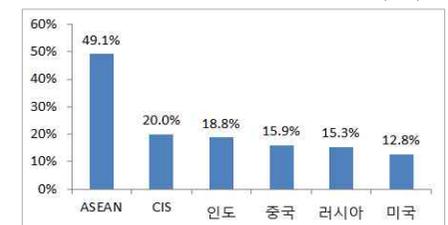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과 수입비중이 높은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변동 리스크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

주요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



\* 자료 : IMF

주요국의 GDP 대비 수입 비중('18)



\* 자료 : IMF, WTO

➔ 수출 변동 리스크를 낮추어 고성장·저위험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남방, 신북방, 중남미 등으로 수출 확대 필요

### Ⅲ. 수출시장구조 혁신 기본방향

- ① 우리나라는 그간 글로벌 공급망(GVC)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지로 성장 → 세계 수출 6위, 무역 1조불 성과 달성('18)
- ② 그러나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,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에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구조

-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'고성장·고위험'의 수출구조를 '고성장·저위험'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 모색
- 특히, 글로벌 GVC 재편에 적기 대응하고 전기차,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GVC를 주도할 필요
-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·투자·산업·기술협력을 통한 「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」 추진

#### < 수출시장구조 혁신 체계 >

<b>비전</b>	견고한 경제성장을 위한 "안정적 수출시장구조" 확립				
<b>목표</b>	수출포트폴리오 개선('22) : 전략시장(30%), 신흥시장(15%), 주력시장(40%) * '18년 비중 : 新남·북방(21%), 중남미·중동·아프리카(9%), 美·中·日·EU(53.4%)				
<b>3 + 3 전략</b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0d0d0;"><b>3대 시장</b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략시장 한류 활용 수출마케팅 강화 → 수출점유율 확대</li> <li>② 신흥시장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→ 신규시장 진출</li> <li>③ 주력시장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 → 안정적 수출 확대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0d0d0;"><b>3대 전략</b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글로벌 R&amp;D와 해외 M&amp;A를 통한 기술력 확보</li> <li>②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</li> <li>③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·투자 전략 추진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<b>3대 시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략시장 한류 활용 수출마케팅 강화 → 수출점유율 확대</li> <li>② 신흥시장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→ 신규시장 진출</li> <li>③ 주력시장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 → 안정적 수출 확대</li> </ul>	<b>3대 전략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글로벌 R&amp;D와 해외 M&amp;A를 통한 기술력 확보</li> <li>②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</li> <li>③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·투자 전략 추진</li> </ul>
<b>3대 시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략시장 한류 활용 수출마케팅 강화 → 수출점유율 확대</li> <li>② 신흥시장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→ 신규시장 진출</li> <li>③ 주력시장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 → 안정적 수출 확대</li> </ul>				
<b>3대 전략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글로벌 R&amp;D와 해외 M&amp;A를 통한 기술력 확보</li> <li>②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</li> <li>③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·투자 전략 추진</li> </ul>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글로벌 R&amp;D, 해외 M&amp;A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약 2.7조원 지원(~'22)</li> <li>② 시장 다변화·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 약 3.7조원 추가 지원('20)</li> <li>③ 전략시장 특화·소비재 해외마케팅 등 '20년 526억원 투입('19년 대비 151억원 증액)</li> <li>④ '22년까지 新남방·중남미 등과 FTA 10건 이상 추가 타결('19.현재 15건 발효)</li> </ul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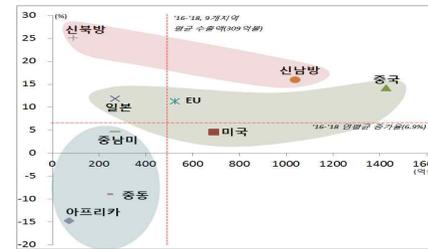
### Ⅳ.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

#### ◇ 수출시장 구분 및 시장별 전략 : 전략·신흥·주력시장

- 최근 3년간('16~'18)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전략·신흥·주력의 3대 시장으로 분류

⇒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연계 추진

'16~'18 연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



연도별 수출증감률('16~'18)



- (전략시장) 연도별·연평균 수출 증감률을 고려, 최근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을 전략시장으로 분류
  - 최근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, 경제성장률이 높으며 수입 변동성은 낮아 시장이 안정된 유망 시장
- ⇒ 한류 등 對韓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,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화 등 전략적인 시장 진출 추진
- (신흥시장)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중남미, 중동, 아프리카를 신흥시장으로 분류
  -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초기 진입이 어려운 시장
- ⇒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규시장 창출과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, ODA, 산업협력 등 정부 차원의 통상협력과 수출마케팅 추진
- (주력시장) 수출증가율 또는 수출액이 평균보다 높은 시장인 중국, 미국, 일본, EU를 주력시장으로 분류
- ⇒ 기존 중간재(71%)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하여, 첨단제품·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·고급화 추진

# 1 전략시장 : 신남방·신북방

## 가 수출확대 방안

### ◇ 신남방

#### 1 한류(韓流)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 개척 (산업부, 문화부, 중기부, 보건복지부)

- 한류 연계 전시회 등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보험 지원
    -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대상으로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\*하고, '19.하반기 신남방 지역 수출마케팅 총 70여회\*\* 지원
    - \* 중소기업 35% 할인(기존 25%) +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 2배 추가 우대
    - \*\* 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('19.11월, 자카르타), GP아시아 2019('19.10월, 방콕) 등 전시회 /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(베트남, 태국, 싱가포르) 및 홍보팝업부스(말레이시아)운영 등
  - 유통망, 프랜차이즈, 전자상거래, 홈쇼핑 등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촉진
    - \* 진출사례 : 【종합품목】 롯데마트(생활소비재식품), 【전문품목】 메디팜(의약품), JAJU(고급 생활용품), 【서비스】 NHN(콘텐츠), 【홈쇼핑】 GS홈쇼핑, CJ홈쇼핑
    - 콘텐츠진흥원과 협업 프로그램 「웹툰 플랫폼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터」 등과 같은 세부적인 현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추진(KOTRA)
    - \* 레진 라인코믹스 등 1개 웹툰 플랫폼 해외진출 시, 100여개의 개별 웹툰 콘텐츠 진출 가능
- ※ 수출중소 전략신흥·주력시장 진출지원 보험(무역보험공사) : ('20) 2조원(신설)

#### 2 지역생산 네트워크 편입을 통한 소재·부품 수출 확대

- 현지진출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소재·부품기업간 바이어 미팅, 상담회 등을 중점 지원
  - \* 인도 제조산업전 한국관('19.9/벵갈루루), 국제 광업기계전 한국관('19.10/콜카타) 등
  - 현지 생산거점 조성·운영에 따른 기자재·부품 수요에 대응하여 통관절차 간소화, 관세인하 협의 등 지원 (신규FTA 등)
- 해외 생산시설을 신남방 등으로 이전시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통해 중장기 무역금융 특별 지원

※ 신남방 등 진출 보증지원(무역보험공사) : ('19추경) 250억원 → ('20) 1,000억원 규모(+750억원)

#### 3 대형프로젝트 수주 지원

- 인니의 국영 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발주처 지원한도 약정\*을 체결해 우리기업 수주 확대 지원
    - \* 무역보험공사의 先금융 後수출 전략으로 전략적 발주처 지원 한도를 제공하고 금융사용조건을 한국EPC에 대한 발주로 한정함에 따라 한국기업 수주로 연결
  - 신남방 공기업과 우리 중소·중견 벤더(기자재 수출업체) 간 벤더 페어 (Vendor Fair)를 공동 개최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
  -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원루프 서비스\*를 위해 다수의 지원기관이 산재한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에 「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」 신설('20년)
    - \* 신남방 지역 내 기업·기술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, 신남방 진출(예정) 기업 애로사항 분석, 현지진출 가이드북 제작 등
- ※ 전략지역특화 해외진출지원사업(KOTRA) : ('19) 18억원 → ('20) 40억원(+22억원)
-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를 중심으로 팀코리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펀드 투자\* 등 금융 지원 강화 (국토부)
    - \*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(PIS) 모태펀드 1.5조원(공공 6천억원+민간 9천억원)
  - 필리핀 마닐라 신공항 사업(인천공항공사),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사업(KIND)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집중 지원 추진

### ◇ 신북방

#### 1 ODA 등 산업협력 생태계 조성 (산업부, 농식품부, 국토부)

- 신북방 국가들의 중점육성 분야(자동차, 농기계, 조선, 섬유 등) 중심으로 합작투자, ODA사업 등을 활용한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
  - KOTRA,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농업기술 및 기자재 패키지 수출을 위한 '한국형 스마트팜 수출' 지원
  - \* 카자흐러시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현장 시연회 및 수출상담회('20년, 모스크바)
- 플랜트수주지원센터(모스크바, 타슈켄트) 및 프로젝트 정보은행(플랜트 산업협회)을 활용하여 유망프로젝트 발굴 등 수주지원 강화
- 중앙아 협력 사업 점검, 기업 애로 청취,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「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\*」 운영
  - \* 공동위원장: 산업부 장관·무역협회 회장, 반기별 개최(1차: 6.21일, 2차: 12월 예정)

- 중앙아 3개국과 관심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양자채널을 운영하고, 구매사절단(우즈벡), 시장개척단(우즈벡, 카자흐) 파견 ('19.9.24~27일)

- 플랜트수주지원센터(모스크바, 타슈켄트) 및 프로젝트 정보은행(플랜트 산업협회)를 활용하여 유망프로젝트 발굴 등 수주지원 강화

- \* CIS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은 '17년 141억불에서 '27년 353억불로 약 2.5배 성장 전망

- 해외인프라협력센터(우즈벡, KIND)를 운영하여 인프라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북방 투자개발사업\* 인프라 협력 강화 (국토부)

- \* 벨라루스 M10 고속도로 사업 등

## ② 소비재·농업 기자재 등 유망품목 수출 지원 (산업부, 농식품부, 보건복지부)

- 국가·지역별 유력 온·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 마케팅 활동 협력 강화

- \* ('19년)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모스크바, K-Beauty in CIS, 모스크바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/ ('20년) 모스크바 한국상품전,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류박람회 개최(잠정)

- 신규 바이어 매칭, 상품 테스트 등 초기 개척 활동 추진(9~10월) 및 마케팅·물류 지원 등 수출 확대 전략\* 마련(농식품부, 10월)

- \* '신북방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포럼'(5~8월)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

## ③ 신북방 보건의료 진출 기반 확대 (산업부, 보건복지부)

- (러시아) 한-러 간 「9개 다리 행동계획」('19.2월 서명) 후속 사업 추진 및 러시아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공동 수립('20.上 예정)

- \* 극동지역 병원정보시스템(HIS) 전략 수립을 위해 한-러 보건부 실무작업반 운영중

- (우즈벡) 보건자문관 및 협력센터 중심 보건의료 정책 컨설팅 진행 (건강보험·의료관광 관련 연구조사), 「한-우즈벡 eHealth 행동계획」 수립

- \* 한-우즈벡 eHealth 행동계획 발표 및 디지털헬스케어 포럼 개최('19.9.25, 타슈켄트)

- \*\* 우즈벡 내 한국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구축 추진 (1차 워킹그룹 회의 '19.9.26, 타슈켄트)

## ④ AEO MRA\* 전략적 활용 및 확대 (관세청)

- \* 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
MRA(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) : AEO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합의한 통관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간 약정

- 카자흐스탄('19.4월 체결) MRA 전면이행 및 러시아, 몽골 등과 MRA 체결을 추진하여 우리기업 현지 통관 애로 해소 및 간소화 도모

## 나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

### □ (보건산업) 신남방 보건산업 시장 개척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

- '아시아 바이오경제 네트워킹'을 통해 전시회와 연계한 파트너링 개최(바이오플러스, '19.11월), 인허가 제도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 등 정보교류 (산업부)

- \* 한국 바이오협회 주도로 14개국의 바이오 관련 기관 참여(대만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중국, 인도, 일본, 베트남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)

- 한-ASEAN간 보건의료협력 강화 및 동반산업 성장 유도를 위한 정례적 장관급 대화채널 구축 (보건복지부)

### □ (조선)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발주 선박 수주 및 국내 선박기자재 기업의 러시아 진출 확대

- \* '14년 이후 국내 조선사 러 선박 30척(대우 15,척 현대 8척, 삼성 7척) 수주, 북극 LNG2 15척 추가 수주 추진 중

- 어선·특수선 등 소형선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말련·필리핀·인니에 무역사절단을 파견\*하여 국내 중소조선사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

- \* KOTRA·중소조선사 합동으로 3개국 순회 현지 상담회 개최(반기별 각 1회 이상)

### □ (철강) 신남방 시장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채널 구축('20년)

- 인도, 인니 등 주요국과 수입규제 및 강제인증제도\* 등 비관세장벽 관련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

- \* 인도(BIS), 태국(TISI), 인니(SNI), 말련(SIRIM) 등에서 강제인증제도 운영 중이며, 불필요한 인증절차 및 잦은 심사 주기 등으로 수출 애로 발생

- (섬유) 국내 최대 섬유 교역시장인 신남방지역 수출확대\*와 신흥 유망지역인 중앙아시아 시장개척\*\*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\* 한-베 경제공동위 산업기술분과위(섬유분야) 운영 및 양국 섬유협회간 수출상담회 행사 개최(연 2회), '베트남 호치민 섬유유류산업전'('19.11월) 참가 지원 등

- \*\* 한(생산기술연구원, 다이텍연구원)-투르크(섬유산업부)간 합성섬유 및 염색·가공분야 협력 MOU 체결('19.4월) 및 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구축(~'19.下) 등

- (철도) 각 국의 교통물류망 확대 계획에 대응하여 한·러 9개 다리,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\* 구성 등 G2G 철도 협력 활성화 (국토부)

- \* '17.9월 한·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철도운송 한·러 공동연구 등 추진 중

- 철도 분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연계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

## 2 신흥시장 : 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

### 가 수출확대 방안

#### ① 경제개발 등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추진 (기재부, 산업부 등)

- 중동지역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비즈니스 포럼 및 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발주처·시공업체 등과 1:1 매칭 지원
  - 현지 벤더 등록 서비스 대행(코트라), 프로젝트 정보은행(플랜트산업협회)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플랜트 수주 사절단 파견
- 미주개발은행(IDB) 한국신탁기금(1.4억불 규모)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 프로젝트 수주 지원
  - 중남미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페인 건설사\*와 협력 강화
  - \* 현지·북미기업 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28%의 시장 점유율 차지
- 국가개발 계획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라크 등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
  - 중장기적으로 「무역보험법」을 개정하여 국가개발 특별계정설치 근거 마련 검토

※ 국가개발 프로젝트 보험(무역보험공사) : ('20) 1조원 규모(신규)

#### ② 보건의료, IT 등 신성장 분야 진출 (산업부, 보건복지부, 외교부 등)

- 신성장산업 전문 국제입찰팀\* 구성(KOTRA), 국부펀드와 합작투자 모색 등 중동 및 제3국 신성장산업 시장 공동진출
  - \* 인력진출(면허, 교육, 인사관리), 사업화(사업발굴, 모델정립, 마케팅 등), 금융(재원 조달, 수익환수 등), 법제도(인·허가, 조세, 계약서 작성 등) 분야로 구성
- 중남미 시장 바이오·의료부문 수출 확대를 위해 의약품 관련 신속한 인·허가를 지원하고 업계·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및 FTA 추진
- 한-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보건의료 세미나('19.10월), 한-중남미 미래 협력 포럼 개최('20.6월)\*를 통해 IT 기반 의료기술 협력사업 발굴 추진
- 의료기관 위탁운영(UAE, 쿠웨이트), 병원 정보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 수출(UAE, 바레인) 등 중동지역 보건산업 진출 지원

#### ③ 동반성장 협력채널 구축 (산업부, 외교부, 국토부)

- 관·공공부문 주도의 경제 특성을 감안, 주요국과 산업다각화 협력 채널(G2G)을 구축하여 상호 윈-윈 사업 발굴
  - 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, 카타르 고위급전략협의회, UAE 경제 공동위 등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 발굴·이행 지원
  - 방위산업 수출 시 수출 대상국(세네갈, 에콰도르 등)의 국가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조달이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

※ 방위산업 수출보험(무역보험공사) : ('20) 1,000억원 규모(신규)

-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주요 국가인 이집트, 알제리, 나이지리아, 남아공, 탄자니아 등과 협력채널 활성화 및 집중 협력 추진
  - \* 한-알제리 경제공동위('19.下), 남아공 산업·통상 협력채널 신설('19.下) 등
- 아프리카의 수요와 우리 역량을 고려한 우선 협력 분야 중심으로 산업육성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협력 추진
  - \* 탄자니아 선박 인력·기술센터 건립 등
- 해외인프라협력센터\*(케냐)를 통해 인프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지능형교통체계(ITS) 등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 추진 (국토부)
  - \*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에서 운영

#### ④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비재 수출 등 제품 다양화 (산업부, 중기부)

- 한류 연예인·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, 중남미의 다인종(백인, 원주민, 흑인 등)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품 다양성 확대
  - 한류 연예인 모델, 한류 드라마 PPL이나 K-pop 아이돌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
  - \* '17년 중남미 화장품 시장규모는 654억 달러로 세계 시장(4,649억 달러)의 14.1% 비중
- 아프리카 주요 국가(이집트, 알제리, 남아공 등)를 중심으로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및 수출 촉진
  - 동부·남부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('19.下, 2회), 아프리카 소비재 전시회('19.10월, 남아공) 참가, 저소득층 대상 CSR 활동\* 지원
  - \* (예시) 우리기업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워치 55개를 CSR 일환으로 기증 등

## 나 기반구축형 산업협력 추진

□ (마이크로 그리드)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장치(ESS)로 구성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

○ 3년간('18.3월~'20.12월) 총 70억원 규모로,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용량 산정 및 시뮬레이션, 시스템 실시설계 등을 추진

- 태양광발전(1MW), ESS(1.4MWh), 디젤발전기(8대)와의 연계·제어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설치, 계통연계 공사(2km)

\* 에콰도르는 태양광발전소 및 ESS 설치부지(9,163m<sup>2</sup>) 제공, 기존 디젤발전소와 연결을 위한 전봇대 설치(2km) 등 분담

구분	2018	2019	2020	합계
예산(억원)	9.72	31.16	29.11	70

□ (바이오·헬스) 국내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브라질 최대 의료기기 인증 컨설팅 기관과 MOU 체결('18.5월)

\* (한국)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- (브라질) 베라로사스

○ 안비자(ANVISA)\* 컨설팅 서비스 제공, 규정 및 시장 현황 공유 등으로 브라질 진출 시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

\* 브라질 위생감시국(의약품·의료기기 규제관리기관)의 인증 제도

□ (섬유) 섬유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구축사업 추진('18~'22)

\* 한국섬유산업연합회 -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간 MOU 체결('16.5월), 에티오피아는 부지제공 및 건축비용 부담, 한국은 장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

○ 국내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('19.8월), 투자조사단 방문('19.10월)

○ 5년간('18.3월~'22.12월) 84억원 규모로, 설비 및 기자재 구축, 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등 추진

\* 에티오피아는 볼레레미아II 산업단지내 건물 및 부지(약 120억원) 분담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계
예산(억원)	10.8	41.2	12.2	10.0	9.8	84

## 3 주력시장 : 중국·일본·미국·EU

### 가 수출 고도화 방안

① 고급 소비재 수출 및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(산업부, 중기부)

○ 중국은 생활용품, 뷰티·헬스, 패션, 식품 등 대표 소비재\*를 발굴하고, 지방경제 협력채널\*\*을 활용해 2·3선 도시 집중 공략

\* 전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'25년 44%까지 확대될 전망

\*\* 기존 채널(광둥·섬서·사천·산둥·강소성) 활성화, 동북3성 등 일대일로 거점 지역으로 확대

- 중국 국제수입박람회, 한류상품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현지 바이어 및 유통망 확보 지원

\* 전자상거래 최대 수요 시즌(11~12월, 광군제)에 맞춰 농식품 온라인몰, O2O(Online To Online) 매장 등 새로운 유통 채널과 연계한 특별 판촉 추진(농림부)

- 중국내 KOTRA 지원 조직(무역관)을 기존 19개에서 22개 지역으로 확대(창춘, 하얼빈, 스자좡 3개 지역 신설)

○ 일본의 경우 10·20대를 중심으로 한류\*가 지속 확산되면서 패션·뷰티, 식품 등 한국 소비재 인기 지속

\*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의 시청률이 10% 이상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고, 대규모 한류공연도 성황리에 개최('19.7월 BTS 공연에 21만명 참석)

- 라쿠텐, 아마존재팬 등 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여 국내 온라인 판매자 및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

- 온라인 판촉전·설명회 등 전방위 현지 지원(일본 4개 코트라 무역관 활용), 라쿠텐·아마존재팬 유틸리티 벤더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

○ 아마존 등 美 온라인 유통업체 입점을 지원하고 고객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홍보 지원

\* 젊은 소비계층 증가로 미국시장 내 온라인 비중 급증세('10 : 6.9% → '17 : 10.9%)

- KOTRA 로켓스타트(중소기업 대상 아마존 입점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사업) 등 해외 온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('19년 500개사, 45백만원)

## ② 초기단계에 있는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(산업부, 중기부, 보건복지부)

- 중국내 벨류체인에 우리나라 소재·부품기업의 연계 지원, 신산업 교류회(KIAT) 등을 통해 한·중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
  - 환경·안전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틈새시장\* 공략
  - \* (예시) 대중교통시스템, 스마트관제시스템, 쓰레기분리수거 시스템 등
- 미국에서 한·중 경합도가 높은 품목\* 대상 對美순회틈새시장개척단 (19.4분기), 핀포인트 세일즈 등 추진
  - \* 對中 관세부과 등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중국 상품 대체수요 발생(기계류, 전기 기기, 광학측정·정밀기기, 자동차부품 등)
- 한-EU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소차 인프라 협력 강화, K-Beauty 전시회 개최, 화장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추진
  - \* 한-EU FTA 상품무역위원회, 자동차 작업반, 의약품·의료기기 작업반(19.下)
- 스웨덴,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(중기부)
  - 스타트업, 국내외 투자자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이 공동 입주 가능한 공간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\*(KSC) 설치,
  - \* '19년 인도, 미국 설치, '20년 스웨덴, 핀란드, 싱가포르 설치 예정

## ③ 단일 경제권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EU 진출 지원

- EU 국가별 투자환경\* 정보 제공, 현지 창업을 통한 역외기업의 역내기업화 및 해외 M&A 지원
  - \* (서유럽) 판매법인 기업인수 / (동유럽) 생산법인, 자산인수 / (북유럽) 창업, R&D센터 등
  - KOTRA M&A 전담무역관(프랑크푸르트, 암스테르담, 취리히 등) 등을 통해 현지 M&A 제도, 세법, 노무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
  - \* EU 바이어의 65%가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수하나, 51%가 유럽 거점 보유 (생산, 판매, A/S) 부문이 취약하다고 응답
- EU기금 연계 공공프로젝트\* 중 의료기기, 에너지 등 우리기업의 진출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
  - \* EU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EU 기금 연계 공공프로젝트 진행 중, '14~'20년 기간 중 총 3,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

## 나 유망품목 산업협력 추진

- (철강) 한-미 전자무역시스템(eCERT) 구축('20년 목표) 및 한-미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(연내 추진)를 통해 수출 원활화 지원
  - (eCERT) 우리 수출증인서를 美측에 전송, 증인서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토록 하여 양국 간 쿼터 소진 통계 불일치 문제\* 해소
    - \* 통계 차이 발생시, 예기치 못한 수출 물량 반송 및 보세창고 대기 문제 발생
  - (철강협의회) 한-미간 철강협력을 강화하고 수입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
- (바이오·헬스) BIO USA, BIO EUROPE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한 마케팅 파워를 가진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지원 (코트라, 보건산업진흥원, 바이오협회)
  - \* 매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분야 컨벤션
  - 기업수요에 따라 다국적 기업 상담회 개최 등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
- (화학) 친환경·고성능 화학제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우선 화학 대기업(LG화학, SK종합화학 등)이 참여하는 「판로개척사절단」 운영(19.하반기)
  - \* 추후 플라스틱·고무 가공 중소기업을 포함한 '판로개척사절단'을 구성
  -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플라스틱·고무산업박람회(K 2019)\* 참가를 지원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 추진
    - \* NPE 전시회(美), Chinaplas 전시회(中)와 더불어 세계 3대 플라스틱 박람회로서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 예정('19.10.16~23, 독일 뒤셀도르프)
- (스마트시티) 中 허베이성 승안신구\*에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'17년~'35년)
  - \* 덩샤오핑의 선전특구와 장쩌민의 상하이 푸둥신구에 이어 시진핑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
  - 우리나라 도시건설 모델을 수출하고 중국 스마트 신기술을 벤치마킹
    - \* 승안신구는 외자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취소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 → 향후 의료·교육·금융·관광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진출기회 모색

## V.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

### 1 글로벌 R&D와 해외 M&A를 통한 기술력 확보

□ (글로벌 R&D 지원) 유레카(Eureka)\*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&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·부품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

\* '85년 獨, 佛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어, EU, 미주, 아시아 등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&D 네트워크

▶ 참여국 : (정회원국) EU(28), 非EU(13) / (파트너국) 韓 / (준회원국) 캐나다, 남아공, 칠레(3)

○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소재·부품 분야에서 유럽 내 소재·부품 산업 강국과의 전략적 과제를 발굴\*하여 기술협력 강화

\* 유레카 프로그램내 일부 국가와 분야를 지정 1:1 혹은 1:多 형식으로 공동 공고

유레카(Eureka) 공동사업 진행 일정



○ 글로벌 기술전략 포럼\* 등 국가간 기술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, 해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\*\*하여 선진국과의 R&D 공동 기획 확대

\* 매년 6~8월 美, 캐나다, 유럽에서 개최되는 한인과학자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

\*\* 글로벌기술컨설팅사업('19년 7억원)을 활용하여 매년 30개 과제 기획 지원

□ (해외 M&A 지원)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대상으로 M&A 인수자금(2.5조원 이상, '19.10월~) 및 세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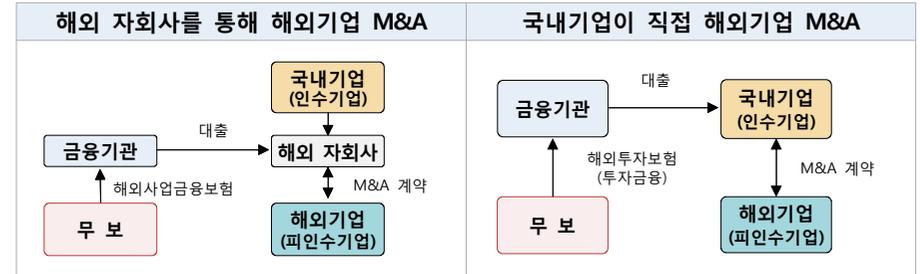
○ 기술혁신형 M&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추가

○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인수 시 법인세 세액 공제('19.말~'22.말, 입법예고중)

\*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(대 5% 중견 7% 중소 10%) 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

○ 소재·부품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M&A 하는 우리기업에 인수금액 80% 내에서 장기금융(5년 초과) 제공 및 보험료 30% 할인(무역보험공사, '19.8월~)

소재·부품 해외기업 M&A금융 지원



※ 해외기업 M&A 보증 및 시설자금 특별보증 : ('20) 2,000억원(신설)

□ (선진기술 협력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(독일, 미국, 이스라엘, 러시아 등)를 대상으로 중점 협력 추진

국가별 강점 분야(예시)

국가	강점 분야
독일	▶ 화학·탄소섬유 소재, 자동차·전자 부품과 공작기계 분야 등에서 시장 선도 * 9.6만명의 전자산업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1년에 11,800건 이상 특허 출원
미국	▶ '17년 화학소재 수출국으로 변모, 다우와 듀폰 등이 세계 화학산업 선도 *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의 美 업계 점유율은 44.7%로 세계 1위
이스라엘	▶ ICT, 항공·우주 등 신산업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·장비, 전자광학장비 등에 강점 보유 * 팹리스 반도체 세계 3위, 의료기기 및 군사용 전자 광학장비 설계기술 세계 1위
러시아	▶ 극지방 플랜트용 특수소재, 화학소재, 항공소재 등의 분야 경쟁력 보유 *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에 필요한 수학, 화학, 핵물리학, 우주공학 등을 집중 지원

○ 4대 국가별·품목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MOU 체결, 기술협력 세미나 등을 추진('19.9월~)

○ 4개국 주한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, 우리나라 경제단체,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소 간 유기적 네트워크\* 활용

\*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(9.24, 러시아), 한-독 기술협력 세미나('19.10월, 서울), 한-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(KIICC) 2019(11.20) 등

##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

### ◇ 수입 중단에 밀착 지원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지원

수입국 발굴	대체수입 지원	상용화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 소싱거점 무역관 (38개소) 구축</li> <li>·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제공(무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입자 특별보증, 대체 수입처 특별보험</li> <li>· 물량확보를 위한 비축공간 제공 및 저장기간 연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용화 前단계 신뢰성 평가 지원</li> <li>· 조달 가능한 소재·부품·장비의 대체 가능성 평가 지원</li> </ul>

□ (수입국 발굴) 신규 수입 수요가 높은 해외 소싱거점 무역관\*(38개소) 구축 → 국내기업 수요에 따른 해외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지원

\* 북미(뉴욕, 달라스 등 7개), 중국(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등 14개), 동남아(대양주(싱가포르, 하노이 등 6개), 유럽(프랑크푸르트, 런던 등 10개), CIS(모스크바)

○ 품목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 국가·품목 등을 구체화 → 조사·매칭 실효성 제고

○ 해외 대체 수입국 발굴을 위한 해외 소재기업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(5회) 제공(무보)

□ (대체수입 지원) 수입자 특별보증·보험 등을 지원하고, 물량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 제공 및 저장기간 연장(15일 → 필요기간)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분야 수입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수입자 특별보증\*, 수입대체 특별보험\*\*의 한도를 기존 수입보험 책정가능 한도 대비 2배 이내에서 확대

※ 수입대체 금융지원(무역보험공사) : ('20) 1,000억원 규모(신규)

\* 日 수출규제 품목 수입기업이 他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자금 대출시, 소요자금 보증 지원

\*\* 日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,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

○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수입신고前 감면 심사 완료 등 수입통관 절차·소요기간 최소화

□ (상용화 지원)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약 6개월 이상 양산평가를 지원하고, 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3~6개월의 신뢰성 지원 연계

○ 이차전지 관련 소재, 로봇 부품 등 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신뢰성 평가 280건 지원('19.추경 720억원)

\* 품목별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기계연구원, 재료연구소 등 공공연구소에서 최우선 지원, 평가기간을 6개월 → 3개월로 단축 추진

○ 반도체,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서 소재·부품·장비의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에서 테스트('19.추경 350억원)

### ◇ 신규 수입국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지원

□ 글로벌 공급망 진출 중심의 「글로벌 파트너링」(GP)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공급망 진출 + 신규 수입국 확보의 양방향(two-way) 지원으로 보장

\* (예) 「GP K-반도체」: 국내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희망하는 국내·외 기업 발굴 및 연계  
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비교

구분	기존 일방향	보강 양방향
지원	(글로벌 공급망 진출)	(글로벌 공급망 진출 + 신규 수입국 확보)
대상	국내 중소·중견기업	국내·외 기업
방식	기업별·분야별 상담회	기업별·분야별·지역별 상담회

○ 특히,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중요 품목은 대기업 1차 벤더에 납품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신규 확보 지원

※ GP 등 해외마케팅 예산(KOTRA) : ('19) 275억원 → ('20) 353억원(+78억원)

□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간 1:1 매칭 주선

○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에 대해 무역협회, 코트라 - 외국상공회의소간 협의를 통해 대체 수입국 발굴

○ 日 수출규제 전략물자 중 對日 의존도가 높고, 국산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한독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대체수입국 발굴

\* ① 품목 선정(무역협회) 후 한독상의회 제안('19.9월) → ② 독일기업 대상 수출의향 조사(한독상의회, ~9월말) → ③ 한국 수입기업과의 1:1매칭(코트라, ~11월)

### 3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·투자전략 추진

#### ◇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으로 소비자 후생효과 강화

- 중소기업의 전략·신흥시장 진출 확대와 FTA 활용 촉진을 위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\* 확대 및 컨설팅 지원 강화
  - \* FTA체결국 현지 바이어, 진출기업 대상 ①FTA활용 홍보·설명회, ②FTA활용 상담·컨설팅, ③통관, 인증 등 기업 애로파악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
  - 필리핀, 인도 등 신남방지역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 ('19)를 통해 진출기업 FTA활용 애로해소 밀착 지원
    - \* ('18) 6개국(중, 베, 콜, 인니, 인도, 태) 13개 → ('19)필리핀, 인도(첸나이)
  - 신남방지역(아세안, 인도), 중남미 등 신흥·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 우선 지원\*
    - \*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수출성공기업('18년 2,700개사) 컨설팅 우선 지원
- 「FTA종합지원센터」(무역협회) 기능을 시험·인증, 법률·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
  - 시험·인증, 지적재산권, 서비스·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확보하여 「비관세장벽지원실」을 신설('20.1.)하고 현장상담 및 컨설팅 제공
    - \*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지식재산보호원, KOTRA 등에서 해외 수출지원 경험이 많은 기존인력을 파견받아 활용
  - 해외규제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당사국과 정부간 협의 실시
    - \* FTA이행위, WTO TBT/SPS 위원회, WCO 등을 활용하여 양자·다자 협상 실시
- 소통강화를 통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등 FTA 성과 공유 및 FTA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
  - \* FTA의 수입 및 고용효과 : 한-미('12~'17) 26.6억불, 57,463명 / 한-EU('11~'16) 46.6억불, 9,983명 / 한-ASEAN('07~'14) 20.7억불, 45,731명 / 한-인도('10~'15) 4.7억불, 11,872명
  - 주요 협상 계기 카드뉴스, '협상 뒷이야기' 동영상 제작 등 생활 체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
  - 관세인하 등 가격인하, 수입국 다변화 및 선택권 확대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·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경쟁환경 조성

#### ◇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FTA 네트워크 확대

- 차기 주력시장인 신남방 지역과의 FTA 확대
  - 아세안 5대 교역국 중 양자 FTA가 없는\* 필리핀, 말련, 인니 등 3개국과 FTA 타결을 추진 ('19년 중)
    - \* 아세안 5대 교역국('18년) : ① 베트남(683억불, '15년 FTA 발효) ② 인니(200억불) ③ 싱가포르(198억불, '06년 발효) ④ 말련(192억불) ⑤ 필리핀(156억불)
-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통한 유라시아 진출 모색
  - 한-러 서·투 FTA 협상('19.6월 개시)을 진전시키면서 이를 모멘텀으로 상품 분야를 포함하는 한-EAEU(유라시아경제연합) FTA 적극 추진
  - 우즈베키스탄과 FTA 공동연구를 추진('19년)하고 FTA를 통한 중앙아시아 내 수출 시장 교두보 확보
- 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기반 조성
  - 한-MERCOSUR TA('19.7월 3차협상 개최) 및 PA 준회원국 가입협상('19.9월 협상세척 협상 개시) 가속화로 중남미 유망 시장 진출 촉진
  - 한-중미 FTA 발효\*('19.10.1)를 통해 신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
    - \* 8월 중미 5개국(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파나마)과의 FTA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비준안료를 통보해온 니카라과온두라스부터 10.1 FTA 발효 예정
- 선제적·전략적 FTA 추진을 통해 주요 통상 리스크 관리
  - 정식 서명('19.8.22)한 한-영 FTA의 신속한 발효절차 진행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-EU FTA 수준의 무역관계 유지
  - 한·이스라엘 FTA 타결('19.8.21)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
    - 정보통신기술·생명공학기술·신재생에너지·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\*
    - \* 한-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(KOR-IL RDF)을 증액하여 산업기술 공동 R&D 적극 지원 등

## ◇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지원

### □ 통상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 강화

- (대응체계) '관계부처·업계(업종단체, 지원기관)·현지(공관, 무역관)'를 망라한 **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** 중심으로 **체계적 대응방안 수립**

\* '13.11월 이후 총18회 협의회 개최, 비관세장벽 사례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

- (대응채널) 양국 정부간 고위급면담·정례협의를, FTA 이행위, WTO 위원회 등 양·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**문제제기 및 애로해소 추진**

- (현지대응) 현지공관 및 KOTRA 중심의 **현지대응반**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기업애로를 **상시접수하고 신속 대응**

\*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(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인도 등 15개 센터 운영), TBT대응 컨소시엄(국가표준원, 해외공관, 시험인증기관 공동 대응)

### □ 민간 대응역량 제고

- (R&D) 해외기술규격,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**제품개발** 지원

\*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('19년 45.6억원)

- (정보제공) 통합무역정보서비스(TradeNAVI)를 통해 비관세조치의 **통합정보 제공**(16개국, 20개 품목, 11개 유형 등 총 900여건 제공)

- (설명회·간담회) 현지 설명회·간담회,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등을 개최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**공유하고 기업에 대응전략 제공**

### □ 비관세장벽 조사·분석 강화

- (사례발굴) KOTRA 실무역관 대상 **비관세장벽 실태조사**, 주요국 비관세장벽 보고서 등을 토대로 **신규 사례 조사**

- (심층분석)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해 **사례별 법률검토**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진출을 위한 **대응방안 분석**

## 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연계형 투자 활성화

### □ 수출거점형 해외투자 지원 강화

- **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\***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**유통법인 설립 및 조달시장 진입 지원**을 강화

\* '19년, 14개국 21개소 설치, 유통·조달 분야 전문 상담네트워크 확충, 조달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법인설립 절차 지원

- 진출국의 FTA를 활용하여 **현지법인 수출마케팅** 등의 지원을 위한 **경영지원 세미나 확대** (연35회→40회)

### □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M&A 투자 지원

- **신북방·신남방** 등 진출유망지역 **유통업체 M&A 적극 지원** (20년 상반기)

- (매물·정보제공) 해외무역관·현지 자문사를 활용하여 **유통업 우수 매물을 집중 발굴**하고 「**전략시장 M&A 가이드북\***」 배포

\* 시장 현황 및 동향, M&A 법제, M&A 고려사항, 지원내용 등 M&A정보 제공

- (설명회·간담회) 수출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**현지 M&A 자문사**를 초청하여 **국내 및 진출기업 대상 유통업종 M&A 설명회** 개최

### □ 유턴기업 유치 및 수출지원 강화

- 제3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해외투자기업 대상 **국내복귀 적극 유치**

\* 「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」을 통해 유턴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

#### 《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('18.11월) 주요내용 》

- ◇ **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** : 해외사업장 50% 이상 축소 → 25% 이상으로 완화
- ◇ **인센티브 강화** : 입지·설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상시고용인원 30인 → 20인 이상으로 하향, 담보 수단 다양화), 농어촌특별세 감면, 국·공유지 사용 특례 등
- ◇ **지원체계 간소화** :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, 신청기한 간소화

- 수출이 주목적인 유턴기업에 대한 **수출 마케팅 지원\*** 및 **무역보험 우대 적용 검토**

\* 수출지원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유턴기업에 가점 부여(중기부)